

영광군 'SRF 불허가' 최종 패소...사업 재개 '관심'

〈고형폐기물〉

사업자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

군, 사업 재개 방침에 유감 표명

"주민 건강권 지킬 절차 따져 볼 것"

영광군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불허가 행정 소송에서 최종 패소에 사업 추진에 관심이 쏠린다.

사업자는 중단된 사업 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영광군은 법원 판결에 대해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업자 손실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해 갈등이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영광군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광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영광군이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에 대해 환경오염과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열병합발전소 건립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17년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영광을 흥농읍 성산리 일대에 1100억원 규모

의 발전소 건립을 시작했다.

주민들이 오염물질 배출로 건강권이 침해된다며 반대하자 영광군은 2020년 7월 영광SRF발전소의 SRF 연료사용 신청을 불허했다.

결국 2021년 10월 열병합발전소는 공정률 56% 상태에서 건설 사업을 중단했다.

사업자 측은 영광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영광열병합발전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열병합발전소 관계자는 "사업을 계획했을 당시 1100억원 규모였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이 커 300억~4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며 "영광군과 협조해 주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따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군수는 "공공의 이익 우선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보다는 사업자의 손실을 우선시한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병합발전소 관련해 여러 행정 절차들에서 군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해변을 따라 걸으며 노르딕 워킹 체험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힐링 필요하나요? ...완도로 해양치유 오세요

해양치유센터 준공 앞두고

각종 힐링·체험 프로그램 가동

완도군이 해양치유센터 준공을 앞두고 각종 해양치유 공공시설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신지 명사심리 해변 일원과 해양문화치유센터에서 해양기후치유 및 해양문화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달 17일 '봄날의 힐링' 프로그램으로 '음면 찾아가는 프로그램', '지역 사회 단체 웰빙 프로그램', '해양치유 힐링 프로그램' 등을 선보였다.

해양문화치유센터도 미디어 아트, 아로마 교실, 도자기 교실, 요리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지난달부터 매주 토, 일 하루 2회, 2시간씩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350여 명이 해양문화치유를 체험했으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재참여 의사가 80% 이상 나타났다.

해양문화치유센터의 미디어 동에서는 완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아트를 제작해 새로운 체험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청산 해양치유공원에서 슬로걷기 축제(4월 8~5월 7일) 기간 노르딕 워킹 체험과 소리, 향기, 해조류, 족욕, 허브백산 등 치유 시설을 예약자에 한 해 무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16개의 테라피 실을 갖춘 해양치유센터는 오는 9월에 공식 개관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박홍률(왼쪽에서 여섯번째) 목포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목포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 감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 고향사랑기부 1천건 달성

10만원 이하가 96% 959건

전남 절반, 경기·서울·광주 順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개월 만에 목포시에 1000건의 기부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는 1월 8건의 기부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109일째인 지난 19일 기준 총 1000건의 고향사랑 기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기부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10만원 이하 기부가 959건(9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부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870건(87%)이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전남 510건(51%), 경기 159건(16%), 서울 145건(15%), 광주 64건(6%), 기타지역 122건(12%) 순이었다.

기부자 연령별로는 40대가 322건(32%)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74건(27%), 30대 222건(22%), 20대 이하 102건(10%), 60대 이상 80건

(8%) 순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필요한 30~50대 직장인들의 기부가 주를 이뤘다.

시는 기부자가 가장 선호하는 답례품은 목포 관광 등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목포사랑상품권과 대표 남도 먹거리인 홍어, 김이라고 설명했다.

봄을 맞아 10만원 기부로 양복담수권 2장을 받을 수 있는 목포해상케이블카 탑승권도 답례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목포시는 이같은 성과가 출향 인사들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고향이 목포인 가수 남진을 비롯해 학창시절을 목포에서 보낸 박우량 신안군수, 이권재 오산시장 등 여러 출향인사들이 목포의 발전을 응원하며 기부에 동참했다.

목포시는 최근 지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진행한 기부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목포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함께 감사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어 모금현황 분석을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1만 281명 60만원씩

영암군이 지역 농협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업인 1만 281명에게 공익수당 61억68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공익수당은 농업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지급되고 있다.

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농어업인에게 1인당 60만원의 영암사랑상품권(지류)을 지급한다. 해당 농어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 농협이나 읍·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면 된다.

수령방법을 카드로 선택한 농어업인은 별도 방문 없이 카드 포인트로 일괄 지급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어려운 영농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을 지키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해남군, 내달 13일 녹우당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해남군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제4회 녹우당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1차 예선을 거쳐 선발된 어린이들이 고산윤선도 유적지 녹우당 일원에서 5월 13일 본선을 치른다.

군은 1차 예선을 통해 10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5월 2일까지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은 전국의 유치원(6~7세) 및 초등학교 1~2학년이 참가할 수 있다.

향교나 고택과 같은 전통문화유산 풍경, 본인 또는 운운서 자화상, 자유소재 중 선택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유치부 및 초등부로 나눠 대상에 전남도지사상과 문화상품권 25만원 등 총 30명에게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산윤선도박물관 누리집과 해남군 문화예술과 고산 문화팀(061-530-554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선정

목포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3년도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선정됐다.

목포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작년 2023년도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중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의 스마트 수리·진단·관리 지원체계 구축' 과제가 전남도 적합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공모를 거쳐 목포시가 최종 선정됐다. 시는 전남도, 목포해양대학교 선박수리지원센터 등과 함께 지난해 전남도 적합사업 선정부터 올해 최종 선정을 위해 산업자원부를 방문하고, 전문가 컨설팅(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 선정에 힘써왔다.

선정된 과제인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 스마트 수리·진단·관리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48억원 포함 총사업비 83억 7000원을 투입해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의 유지·보수 관련 인프라 고도화, 수리 및 진단 표준 절차 확립 등을 추진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해경서부정비창 개장에 대비해 해경함정에 탑재되는 고속엔진의 정비와 수리를 흡수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신안군 '피아노의 섬' 축제

각종 행사 겹쳐 10월로 연기

신안군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피아노의 선율이 울려 퍼지는 '피아노의 섬' 프로젝트를 10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예초 5월 중 2주간 '제1회 피아노의 섬 페스티벌'을 열 예정이었으나 각종 행사와 겹쳐 오는 10월 문화의 달 행사 기간에 선보이기로 했다.

축제 기간 정상급 피아니스트들이 100+4대의 피아노를 자은도 뮤지엄 파크 일원에서 연주한다. 국악·퓨전예술 등 섬 문화 다양성을 품은 문화예술공연을 경험할 수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사랑상품권 누적판매 4년 만에 5000억원 돌파

전국 군단위 최대 발행·판매 규모

4810억 관내 환전...지역경제 도모

해남군이 지난 2019년 4월 발행을 시작한 해남사랑상품권이 4년 만에 5000억원 발행·판매를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남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5098억원을 발행해 5007억원을 판매했다.

이는 전국 군단위 최대 발행 및 판매 규모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이끌며 전국 최고의 지역상품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남사랑상품권은 2019년 17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2020년 1250억원, 2021년 1750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155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총 1300억원 발행을 목표로 현재까지 378억원을 발행했다.

판매를 도한 매년 90% 이상 판매대 현재 누적발행액 5098억원 중 5007억원이 판매됐다.

이중 환전액은 4810억원으로,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 방지와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버팀목으로서 특별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해남사랑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상품권 유통의 기반 마련과 상품권 발행 취지에 공감한 지역민들의 의지가 더해진 결과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해남군은 해남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보에 적극 나서 지금까지 지류상품권 3705개소, 카드상품권 2811개소의 가맹점을 확보해 해남 어디서나 해남사랑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명현관(오른쪽) 해남군수가 지역 소상공인을 찾아 해남사랑상품권 이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 농어민 공익수당과 코로나19 전군민 재난지원금, 공직자 복지포인트 등 각종 정책 수당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는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의 토대를 만들면서 3년여에 걸친 코로나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

상품권 실 사용자수도 2022년 기준으로 4만 7686명에 이른다. 구매가능 인구 기준으로 군민 10명 중 8명이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군은 적극적인 국도비 유치로, 4년간 281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면서 상품권 할인 판매 등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되돌려 주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5000억원 돌파를 기념해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가정의 달인 5월 한달간 10% 할인과 구매한도를 월 70만원으로 상향한다. 50만원 이상 구매시 경품추첨과 해남미소 및 공공배달앱 '떡까비'에서 카드상품권 구매시 5% 캐시백을 지급한다. 전통 시장에서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장보기 후 SNS 게시글을 올리면 해남지역 특산물을 제공하는 행사도 펼쳐진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사랑상품권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준 군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전국 최고의 지역상품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상품권을 통해 군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